

#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신학박사 조덕운

공부 말씀: 누가 복음 5: 12-26

## 1. 병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창 1:31]. 그러나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 쇠약해지고, 병들어 마침내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일을 후회하시고 대 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방주에 나아온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숨있는 생물들을 죽이셨습니다. 대홍수 이후로 세상은 지속적으로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병들어 왔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에 병자가 매우 많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아무리 조심하여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에 병원이 무려 6210개가 있고 의사는 87만명이 넘게 있으며, 매년 병원에 입원하면 평균 35만불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며, 병원 의료비의 총액이 2018년 한해 \$1,193 Billion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 사회에서 각종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지만 환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주 예수님께서 빛으로, 치유하시는 의사로 오시겠다고 주님 태어나기 수백년 전에 대언자들이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61:1-2]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주님의 사명은 첫째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함이고, 둘째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이고, 셋째로, 사탄의 결박과 죄의 노예된 영혼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영혼 해방의 역사를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신체적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지만, 이 치유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탄과 죄의 굴레로부터 속박된 영혼을 풀어주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치유하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일까요? 그분의 치유하는 능력은 그분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마치 태양 빛이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력을 주어 고침 받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빛 되신 주님에서 나오는 치유의 능력이 상한 영혼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거하고 선행을 할 때에 주님의 빛이 아침 햇빛처럼 터져 나오고 건강이 솟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8: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네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네 의가 네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네 후위대가 되리니*

대언자 말라기 역시 이사야의 말씀과 유사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 안에 주님의 햇빛이 병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4:2]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

이러한 구약 시대 대언자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인생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심의 성격을 태양이 모든 피조물에 가져다 주는 치유와 성장의 역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태양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모든 생물은 활동을 축소하고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에 온 세상을 비치면 모든 피조물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활동을 개시하며 성장과 결실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복음 사역의 초기에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가 자신에 대해 예언한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4:18]. 이 선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폭발적이고 도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선언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의미이었음을 이 사람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하였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집을 고치고, 가구를 만들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건축 업자로 살았던 이 예수가 스스로를 메시아로 선언하는 것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선언을 하나님께 대한 모독적 언사로 받아들이고, 매우 화를 내어 그분을 돌려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가를 미리 염려하고 듣기 거북한 말은 피하고 소위 “정치적으로 적합한, 즉 Politically Correct”한 말만 전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메시지는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무리 없이 용납될 수 있는 말씀만 하는 전도자의 생활을 했다면, 과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책이라고 진실되게 말하고 사랑하고 매일 즐겨 읽음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Politically Correct한 전도자가 아니신 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존경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대언자 이사야가 미리 말한 자신의 사역을 고향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후에 이를 즉각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귀와 죄와 잘못된 전통에 매인 자들의 속박을 풀어 주며,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정신적인 치유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19-22]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목회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상한 마음과 인생을 치유하는 역사, 죄와 사탄과 세상의 전통에 갇혀 신음하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해방의 역사를 실천해야만 주님의 사역을 이어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치유와 해방의 역사를 자신의 종들이 수행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그의 제자들이 실천하였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사는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참된 제자들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7:19-21]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 2. 누가 어떤 고침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여 의원에게 갈 형편도 못되었으며,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으로 오랜동안 고통을 겪어오면서 자신과 가족 모두 힘든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의 처한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자신이 지닌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여러 질환과 결함들을 돈 받지 아니하고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공사역의 초기부터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알 수 있는 병 고치시는 사역으로서 가버나움에서 마귀에 붙잡힌 병자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으며, 이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갈릴리 지역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 네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곧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보면서 이 4명의 제자들은 자기네가 따르기 시작한 선생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신 특별한 분이심을 알게 되어, 혹시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병고침 사역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믿음을 갖게 도움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첫번째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고침을 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고침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12-13]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 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열왕기하 5장에서 우리는 시리아의 국방장관이지만 문둥병 환자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르단 강에 일곱번 몸을 담그는 순종의 행위를 한 후에 그 병이 온전히 낫게 된 사실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 받은 이 문둥이는 요르단 강에 일곱번 몸을 담그는 수고를 하지 않았지만, 치유의 하나님, 온 인류를 고치시는 메시아에 대한 단순한 믿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동일한 기적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나병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도저히 사귀을 나눌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양적으로는 직장을 가지고,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속에는 온갖 추악한 병이 자신의 영혼을 마치 문둥병처럼 썩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남은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썩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참 모습을 드러낼가봐 두려워 합니다. “나는 멀정한 사람이야”라고 외치지만, 나의 속사람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문둥이 입니다.”

그렇지만, 대언자 엘리사에게 나아온 한 나라의 국방장관 나아만, 그리고 1세기에 주 예수님께 나아온 이 문둥병자 두사람 모두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여러 사람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는 단순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주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단순한 마음, “주여 나를 고칠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의 모든 크고 작은 죄를 모두 씻을 수 있는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대속 헌물이 되시어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둥병을 깔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병고치신 사례는 한 마비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몸이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여 예수님께 고침 받으러 나아갈 능력이 없었으므로 그의 친구나 가족들이 그를 데려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18-20] 보라, 사람들이 마비 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마비병 걸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와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마비병 걸린 사람의 근원적 문제는 그의 여러 죄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죄들을 용서 받았느니라”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실상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들을 고백하고, 고쳐 주실 수 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만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 받은 사람은 마비병 걸린 환자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안에 죄들을 바라보게 되고, 참 치유의 하나님 되신 메시아 예수의 고치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체에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개체들에게도 유사하게 생명의 역사를 촉발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진척되기 위하여는 “땅의 품질”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예시하셨습니다. 씨가 떨어져 싹이 돋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땅이 “좋은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심령, 즉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데, 좋은 태도는 이 친구들처럼 믿음의 태도, 불쌍한 사람에 대해 연민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이웃 사랑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간청하는 회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관찰하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등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치유 사역이 성경의 예언 대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비판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 비뚤어진 심령이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리고 성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받는 축복이 결정됨을 안다면 서둘러 잘못된 우리의 태도를 고칠 것입니다.

*[로마서 1:18-19]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 3. 나는 고침을 받았는가?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해 공부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시작한 치유의 사역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물리적인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자괴하거나, 혹은 이를 결격사유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묘사한 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물리적인 병들과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신체적 결함까지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결핍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 들이게 ‘도와주는’ 주님의 큰 배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그의 종들이 발휘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죄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본원적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사귀을 나눌 수 있는 그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큰 이적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일어나기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10:22]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